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무자의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개선방안 탐색*

표 윤 희** · 김 정 연***

Experience of Practitioner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on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and Exploring the Improvement Plan*

Pyo, Yun-hui** · Kim, Jeong-youn***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held by practitioner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explore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Method] Ten practitioner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that analyzed previous studies, the interview papers were developed, and data on the actual status and percep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program contents and education plans, problem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and needs and improvement plans fo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nd small group interviews.

[Results] Four themes were derived: 1) expectations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2) prerequisites for this lifelong education if it is to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fe, 3) activation of this lifelong education and expansion of th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and 4) strengthening the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and, in turn, the support capacity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has investigated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practitioner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identified the difficulties these programs face, prepared improvement plans, and confirm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al support.

Key Words :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Experience, Improvement Plan, Qualitative Study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1049780).

** 제 1저자,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Inje University

*** 교신저자,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hanle3532@hanmail.net)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 서론

인간으로서의 교육권과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은 전생애기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자기옹호, 자기결정의 철학적 기반 아래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Goodley, 2000). 2016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조항이 추가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김기룡, 이경준, 2017).

2018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 아래에 설치되었고,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와 시·도간 분담체계를 정립하였다. 국가의 역할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행정기구, 전담·지원기구, 심의·협의기구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시·도 기관의 역할은 지역 실정을 감안한 ‘시·도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확충 운영하는 것이다(김정연, 허유성, 표윤희, 2021). 법 개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이 강화되었고 전반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전혀 없는 장애인의 비율은 99.1%(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전체 장애인 중 1%도 되지 않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는 인식 및 요구 조사 연구(강주희, 정연수, 2023; 권미영, 2022; 김기룡, 2020; 김두영, 김호연, 홍재영, 2014; 이지선 외, 2024; 이현주, 정평강, 2021; 차재경, 박영근, 2021)가 주를 이루고,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모델 개발(강동선, 신진숙, 2015; 김두영, 박미진, 정진숙, 2016; 김주영, 2020; 이영선, 2018),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김기룡, 나경은, 2015; 김정연, 허유성, 표윤희, 2023; 홍성두, 조은혜, 2018) 등 양적인 증가와 함께 연구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 평

평생교육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 프로그램 평가지표 관련 연구(김원호, 황수연, 박지석, 2024; 김주영, 강은영, 주교영, 2021; 조창빈, 김두영, 장철승, 신민선, 2022)도 이루어졌다.

장애인은 개인마다 독특한 지적·정서적·신체적 특징과 요구를 보이며(송소현 외, 2011), 특히 중도(重度)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려면 지원인력 또는 보조기기의 지원, 교통수단의 제공 등 장애를 고려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도장애인의 건강상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등 수많은 변수들은 이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김기룡, 2020). 경도 장애인에 비해 중도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이 중도, 중복, 최종도의 장애인에 맞추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김삼섭 외, 2019), 보건복지부는 중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으로 이 중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37.0%)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4). 한국장애인개발원(2023)에서 제시한 중복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다른 유형의 장애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인은 총 170,124명으로, 전체 장애인구 대비 6.4%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역시 중도중복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평생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강은영, 이인경, 이재원, 신윤희, 2019).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함께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중도중복)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지적하였고(김정연, 허유성, 표윤희, 2021; 최윤영, 이세희, 2020), 중도중복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참여는 함께하는 것 자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중도중복장애인의 특성 및 요구 분석에 따른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차별화된 정책 제도 구현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중 지속적으로 시급하고 간절하게 언급되는 것은 장애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는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조창빈, 김두영, 2016). 그러나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강은영, 이인경, 이재원, 신윤희, 2019; 김기룡, 2020; 김두영, 김호연, 홍재영, 2014)는 일부에 불과하여 장애의 유형과 정도가 다양한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지원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양적으로 증가한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가 모든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중도중복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중도중복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평생교육 콘텐츠를 개발하

고, 전문적이면서도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중도중복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무자의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무자가 경험하는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어려움과 지원요구는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원요구를 파악하여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자 중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원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연구 참여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력과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력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의하여 10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영역에서 10년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구성, 운영,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실무자, 둘째,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실무자, 셋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실무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중도중복장애인은 장애가 중증이거나 주장애 외 1개 이상 중복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표 1〉에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기관 유형별 참여 인원수는 주간보호시설 소속 4명, 장애인복지관 소속 5명, 장애인복지관 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소속 1명이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뇌병변장애인복지관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이 3명, 남성이 7명이었고, 연령은 30대가 2명, 40대가 3명, 50대가 5명이었다. 실무자의 직책은 교강사 2명, 센터장 4명, 사무국장 2명, 부장 2명이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력은 20년~25년 미만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년~15년 미만이 3명, 25년 이상이 1명으로 평균 약 19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력은 3~6년 미만이 2명, 10~15년 미만이 4명, 15년~20년 미만이 3명, 20년 이상이 1명으로 평균 약 1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Session	Age	Gender	Position	Type of organization	Years of experience with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Years of experience with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G1	A	31	Male	Instructor	Residential center for the people with profound disability	10 years	5 years
	B	50	Female	Director	Day c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22 years	15 years
G2	C	51	Male	Director	Day c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20 years	18 years
	D	46	Male	Manager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brain lesion	14 years	14 years
	E	50	Female	Director	Day c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22 years	14 years
G3	F	46	Male	Executive director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20 years	14 years
	G	51	Male	Director	Day c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21 years	21 years
	H	53	Male	Manager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26 years	13 years
G4	I	47	Male	Executive director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23 years	15 years
	J	34	Female	Instructor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11 years	3 years

2. 자료 수집

1) 면담질문지 개발 및 타당성 검토

면담질문지는 장애인 평생교육 및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강은영 외, 2019; 김보배, 2023; 김정연, 허유성, 표윤희, 2024; 이지선 외, 2024; 최윤영, 이세희, 2020 외)를 분석하여 면담질문지 초안을 개발한 후 연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질문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면담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질문지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및 중도중복장애 관련 전문가 2인에게 내용타당도 검

증을 받았으며,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및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질문지를 최종 완성하였다.

면담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및 인식,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진행 경험 및 어려움,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요구 등을 포함하였다. 질문 내용은 <표 2>와 같다.

<Table 2> Interview questions

Category	Questions
Status and awareness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do you think is the purpose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multiple disabilities? · What do you think is most necessary and important in a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 What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re there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and how are they conducted? (Education content and methods) · How do you think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should be structured and conducted?
Difficulties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are the general difficulties in operating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 What difficulties do you experience when organizing and operating a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 What difficulties do you experience in the content, operation system, and support system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Support needs fo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multiple dis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ease tell us about any help or support necessary to provide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 What are some way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 What support and tasks are needed to activate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2) 면담 실시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면담질문지를 1주일 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면담 일정을 정하였으며, 면담은 화상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선호 시간을 고려하여 개별 면담 1회, 소집단 면담 3회로 총 4회기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참여자 수는 G1은 1명, G2는 4명, G3는 3명, G4는 2명이었다.

면담은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진이 주면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연구보조원은 보조 면담자로서 면담을 보조하고 필드노트를 작성하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 및 전사되었으며, 면담 소요 시간은 1시간~2시간 10분으로 평균 100분으로 나타났다.

3) 전사본 작성

연구진은 참여자에게 면담 전 과정에 대한 녹화 공지 등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녹화 자료는 녹화 당일부터 최대 3주일 이내에 전사한 후 원자료를 생성하였고, 연구진들은 모든 면담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전사본의 내용과 녹음 파일의 내용을 점검하여 전사본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전사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고 누락된 내용은 보충하여 전사본을 완성하였다. 전사본은 총 4부로 한글 워드에서 글자크기 10, 줄간격 200으로 조정하여 한쪽당 34줄이 들어가도록 작성하였으며 A4용지 총 140쪽의 분량이었다.

3. 자료 분석

전사된 면담자료는 개방 코딩과 지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s) (Merriam & Tisdell, 2015)의 단계에 따라 내용의 범주화 및 부호화 작업을 거쳤다. 연구진이 첫 번째 전사본을 읽고 단어, 문장, 단락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선별하고 각 진술들의 중심의미를 이끌어 내어 1차 코드북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을 제시하면 첫째, 한글 워드의 메모 넣기 기능을 활용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진술이 내포하는 전사본의 내용을 간단한 문장 또는 어구로 기술하였다. 둘째, 연구진은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진술문에 표시하고 핵심 내용을 담은 1차 코드북을 완성하였다. 셋째, 1차 코드북을 기초로 순차적으로 전사본을 분석하면서 유사한 코드를 통합하거나 분리하고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각 코드의 정의와 예시를 코드북에 작성하여 코드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인용문도 함께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드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면서 범주화시켜나갔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코드 및 범주 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4개의 대주제, 19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4.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 및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한 노력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하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질적 자료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진이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공동으로 수행함(researcher triangulation)으로써 현상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전사된 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면담 자료의 분석은 음성녹음을 텍스트로 전사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사하고, 연구진은 녹음 내용과 전사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전사본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전사본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견에 의한 연구

결과의 왜곡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진은 지속적인 논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코딩을 조정하는 동료 검토(peer debriefing) 과정을 거쳤다. 셋째, 면담자는 참여자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한 후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면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넷째, 자료 분석과정에서 면담 및 분석 자료, 녹음 파일 등을 모두 보존하여 연구 절차 및 결과 관련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연구진은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자 연구참여자가 연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의 활용 등 연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권리 및 보호(예: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거부 및 중단 권리)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면담 시 녹음과 전사기록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등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서명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지원방향에 관한 참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대감, 중도중복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제 조건,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참여 기회 확대,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및 지원 역량 강화의 4가지 대주제와 19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전사 자료 인용에 사용된 기호는 전사본(G1~G4), 참여자 구분기호(A~J)를 의미한다.

<Table 3> Themes and sub-themes

Themes	Sub-themes
Expectations for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A life with proactive self-choice
	A life that is emotionally stable
	A life that is healthy
	A life that is productive in the community
	A life that grows
Prerequisites for lifelong educ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Agreement on the necessity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Expansion of integrated lifelong education platform
	Securing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Improving social awareness including families
	Comprehensive service and safety system

Ac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and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Customized specialized program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Development of programs based on user needs
	Lifelong education with guaranteed choice and opportunity
	Securing continuity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education
Strengthening of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and support capacity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Securing competent professional instructors and human resources
	Improving the conditions for supporting lifelong education operations
	Sharing and dissemination based on cooperative networks
	Changes in perspectives on performance management
	Securing effective policies and practical budgets

1.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에게 행복이란 생각만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평생교육을 통해 주도적인 자기 선택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고, 다양한 평생교육의 참여는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감으로써 생산적이고,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평생교육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1) 주도적인 자기 선택이 가능한 삶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선택권과 결정권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 수행 기술, 자기결정 기술 등 주체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존엄을 지키고 생활 속에서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등 심리적인 통제감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수록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더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활동하는 것, 교통을 이용하고, 생활 환경에서 독립하는 것 등 모두 포함해서 최대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가 심한 중도중복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평생교육으로 자주적이며 자립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G4-I

미술, 음악, 공예와 같은 예술 창의적 활동들은 창의력과 자기표현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들은 예술, 체육, 독서 등 여러 문화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인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게 되고, 자신감이 올라가죠. 자기 가치를 인식하는 기회도 되고, 분명히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G4-I

최근에는 중도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같은 돌봄을 강화한 프로그램과 문화 여가 활동,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행, 목공예 작업, 키오스크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음식점, 불링장, 관공서, 박물관, 요리 수업 등으로 일상생활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성과가 높다고 생각해요. G3-F

2)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언급하였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정서적인 안정감은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 취미와 여가 활동은 개인의 즐거움과 자아실현,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이바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감정인식 및 자기조절,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무기력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중도중복의 장애인들은 일상적인 생활에 활용되는 교육이나 여가생활을 누리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체적인 접근이 어렵거나, 교육 내용이 복잡하거나 해서 참여하는데 제약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중도중복의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이들의 생활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4-I

여가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취미생활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1주일에 한 번 하는 활동이지만, 매우 행복하세요. 내면의 평온과 안정을 찾아 상처가 치유되고 자기의 삶을 찾았다는 말씀도 하시고. G4-J

3) 건강한 삶

참여자들은 다양한 취미 및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정서 및 신체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건강은 모든 개인에게 중요하며, 특히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신체 및 건강 활동, 정서적인 안녕 등을 포함하여 건강한 삶을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중도중복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아닐까요? 요가 등 건강 프로그램도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떨 때는 정기적으로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G4-J

이전에는 집안에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딸기밭이나, 버섯 따기, 캠핑 장가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높았어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활동이라 뿌듯해했어요. 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 차원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보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 기회가 없어지니까요. G2-B

4) 지역사회에서의 생산적인 삶

중도중복의 장애인이라도 지역사회에서의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욕구가 높아서 단순히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여가오락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주의 평생교육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중도중복장애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자기 계발과 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구성원과 가장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중도중복의 성인 장애인들도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많습니다. 다년간의 상담업무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신체적, 지적으로 심한 장애인들도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높았어요. 심지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최중도중복의 장애인들도 직업 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상 최중도중복의 장애인들이 직업 재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G4-I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직업생활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중복장애인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하려면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적 여건을 확립하고 자립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도 자신이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을 통해 존재감과 자아실현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G3-F

5) 성장하는 삶

장애인 평생교육의 영역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교육과 직업,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목적으로 언급하였다.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이 한 명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개척하고 직업을 얻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형평성, 기회균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참여자들이 언급한 '성장'은 장애인끼리의 성장이 아닌 정상화에 기초한 통합된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성장으로 표현하였다.

우리 기관에서는 OO도 최초 시범사업인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은 가족 돌봄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 일상생활, 여가생활, 직업생활에서요. 중도중복장애인임에도 일반인과 같은 환경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반인이 다니는 학원에 가고, 머리 손질을 하고 싶으면 일반인이 다니는 미용실에 가는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G3-F

정말 심한 중도중복이어도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도자기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통해서 촉각이라든가 감각을 익히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작지만, 작품 전시회도 했었어요. 그런 전시회를 통해서라도 성취감을 주고 그다음에 일부는 판매가 되어서. (중략) 이제 나도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작품을 판매한 거를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사회공헌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한 거죠. G2-E

2. 중도중복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제 조건

중도중복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제 조건으로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의 당위성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며, 통합형 평생교육 플랫폼 확장,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인식 개선, 포괄적 서비스와 안전 시스템 등 5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1)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의 당위성에 관한 합의

참여자들은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최근 장애인 인구 고령화, 장애 성인의 탈시설과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으나,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합의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정책적 지원이 따라 주어야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은 이들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기결정에 관한 주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비용 대비 효과가 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들에게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제공해야 한다면, 비용이나 인력 지원 면에서 전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중도중복장애인에 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그룹 활동보다는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로요. G3-G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재정적, 물리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운영과 확장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불충분한 지원과 정책은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데 한계가 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G3-H

2) 통합형 평생교육 플랫폼 확장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중도중복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 증진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분리된 형태의 교육만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 기관에서만 운영해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참여자들은 현재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지역에 있는 비장애 평생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애인이 축구를 한다면 새로 축구장을 만들어야 할까요? 수영을 한다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할지 기존 시설을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계속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간에 시설을 갖추고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기존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G2-D

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정한 시설이나 기관 중심의 지원을 벗어나서 지역사회 전체를 학습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부족한 장애인복지관 수, 낮은 접근성, 제한된 자원, 부족한 공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지역 대학과의 네트워킹,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의 공유시스템 등 지역과 연계를 확대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G4-I

최근 발달장애인지원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과 같은 정책 이슈와 더불어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의 다양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장애인복지관의 한정된 공간보다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원하며 장애인끼리만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 욕구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G3-F

3)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

장애인 평생교육은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도 중요하지만, 중도중복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적 지원 즉,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를 언급하였다. 접근성은 교육기관까지의 접근성과 교육기관 내에서의 참여와 이동 등 적절한 교통수단과 장소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접근성이 보장된다면 다른 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도중복장애인들은 이래저래 참여가 힘듭니다.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타신 모든 사람이 나와서 참여할 수 있게, 지역도 가까워야 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려면 교통도 있어야 하고, 건물에 장벽도 없어야 하고, 그래야 배울 기회가 생기는 거죠. G2-E

이동권이 보장된다면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거예요. 실제로 A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중 B구나, C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경험했던 것을 A구에서도 신설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서 장애인분들의 의견에 따른 변화도 반영되기도 합니다. G4-I

프로그램 접근성과 관련하여 물리적인 접근성 외에 장애 특성에 따른 감각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중도중복장애인의 다수가 청각, 시각 등 감각적인 어려움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더라도 장애유형에 따라 시각, 청각, 촉각 특성을 더 고려하기도 합니다. 시각 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외에도 감각자극에 예민하거나 불편해하는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G3-H

4)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인식 개선

중도중복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의 인식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이 존중받고 통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교육이 필수이며, 사회적 인식과 함께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통합환경이 조성되어야 더 많은 기관

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도중복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선택하여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 못 하시는 가족도 있습니다.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시는 거죠. G4-J

중도중복장애인들도 장애인들끼리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좋아합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댄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댄스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참여하기 좋으며,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으나 지역사회 시설에서는 선뜻 공간을 허락해 주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G2-D

5) 포괄적 서비스와 안전 시스템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받으며, 포괄적 의료와 재활서비스를 통해 안전에 관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이 언급한 지역사회의 안전 시스템이란 차별받지 아니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가족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완화되고, 개인의 욕구 표현이나 의사소통 도구 같은 의사소통 교육도 받고,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도장애인도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기보다 자기 주도적인 삶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물리적, 정책적 환경이 조성된 환경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G2-C

장애인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통합돌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3-F

참여자들은 안전에 관한 이중적인 시선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중도중복장애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현실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안전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아닌데 싶어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적절히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이 있어요. 체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들의 선호도도 높고 교육 성과도 높은 걸 아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지레 포기하는 거죠. G3-H

3.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참여 기회 확대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주제로는 중도중복장애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수요자 요구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선택과 기회가 보장된 평생교육, 교육의 연속성과 지속 관리 등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1) 중도중복장애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기관의 과제이지만, 특히 중도중복장애인에게 필요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중도중복장애인의 필요와 능력은 매우 다양하므로 개인의 특성과 요구, 선호, 그리고 능력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행한다면 장애인의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이 제안한 중도중복장애 특성 기반의 특화 프로그램이란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 기술 훈련이나 돌봄이 강화된 프로그램, 건강 상태의 회복이나 재활서비스가 포함된 내용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유형, 생애주기별, 개인 능력을 고려하여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장애별, 생애주기별, 개인 능력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단순 교육 및 체험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기회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은 만큼 단기간에 사회 참여 활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생애주기, 개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G4-I

중도중복장애인의 경우 시청각 교육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과업들을 실물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직접 부딪치고 경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 환경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학습지원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특히, 적절한 의복 착용, 식사, 의사소통, 지역사회 생활, 대중교통 이용 등 실용적인 기술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G2-C

2) 수요자 요구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수요자 요구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대부분 기관에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거나, 수요 요

구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요조사를 해도 여전히 참여자 예측이 어려워서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개별적 욕구를 수용한 프로그램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주로 문해교육으로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단어나 문장(이름, 주소, 보호자 이름, 전화번호, 좋아하는 음식 등)을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한글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문자나 숫자를 그림으로 인식하여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중략) 그런데 이런 교육보다는 현장 체험 활동으로 진행하면 관심도도 높고 교육효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G2-C

만족도나 욕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신설합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조사 결과와는 반대되는 욕구가 파악되기도 합니다. 폐지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보이거나 신설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 참여도가 떨어져 중간에 폐지한 경험이 있는데 정확한 욕구 파악이 어렵습니다. G4-I

그러나 참여자들은 기관의 입장에서 지자체의 프로그램 선정에 유리한 내용을 개설하게 되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해도, 솔직히 장애의 개별적 특성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적인 관점보다 현재 트렌드와 이슈의 내용을 대부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획일화 되는 현상도 보이지 않습니까? G3-F

3) 선택과 기회가 보장된 평생교육

장애인들에게도 평생교육의 의미는 비장애인과 같다. 참여자들은 평생교육을 통해 중도중복장애인들도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참여자들은 장애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첫째, 원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에서의 선택과 자율성, 책임을 감당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는 내용을 선택할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중도중복의 장애인들도 취업, 평생교육,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 이 욕구들을 해소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도중복 장애인들도 자신

들의 삶을 선택하여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 중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한 참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해요. G4-I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무수한 선택과 기회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해보고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할 기회조차 없는 거죠. 선택 기회가 너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제한된 환경 속에 수동적인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무엇을 결정할 기회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과정조차 무시되어 온 거죠. G1-A

둘째, 원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면대면 교육, 직접 경험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중도중복장애의 특성상 직접 참여가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기관 및 가정 방문형 프로그램 즉, 찾아가는 배달 강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기관에서 기존의 방식만 효과적이라는 경직된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새로운 참여 기회를 방해하므로, 소외된 학습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안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중도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배달 강좌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중도중복 장애인들이 사는 기관이나 집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배달되며, 자기 능력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지요. G4-J

셋째, 선택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조정하거나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목표나 내용의 조정,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운영하다 보면 활동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죠. 누군가는 옆에서 계속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누가 있더라도 프로그램의 내용도 알아야 하고, 중도장애인의 특성에 맞게도 지원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종사자 자체가 장애이해도 부족하고 또 교수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니까 실질적인 참여를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G3-H

획일적인 프로그램만으로는 중도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프로그램의 목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목표로 조정하고, 그렇게 개인의 능력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조정하고 그래야 하는데 G3-H

4) 교육의 연속성 확보와 지속 관리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첫째,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학교 졸업 이후 성인기 평생교육에 참여할 장애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장애학생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졸업과 동시에 성인기에 접어들어 평생교육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성인 중도중복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구조. 졸업 후에도 정확한 수요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학습자 관리 플랫폼도 구축하고요. G3-H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 등 교육이 지속되도록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도중복장애인의 교육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커피, 제과제빵 같은 직업 재활프로그램은 배우는 속도가 느므로 장기간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2-E

평생교육 중 직업으로 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직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기까지 숙련도를 높이려면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3년 이상 지속되지 못하거나 실적에 따라 사업비가 감축되는 경우가 많아서 프로그램의 비연속으로 인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G4-I

셋째,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 관리가 중요하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내용의 유인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담당자, 강사 간의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재미와 즐거움을 도모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동 안내 등 프로그램 진행 전후로 보호자 및 가족과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과 가족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이동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인에게 적절한 교통수단과 장소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수업 전에 셔틀버스 운영,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안내처럼 수시로 정보를 전달하고 파악하고 확인하는 그런 관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G4-I

중도중복장애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정 구성원 모두를 포함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가족의 행복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장애 당사자 대비 가족지원 연계프로그램은 미흡한 면이 있으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모색도 필요합니다. G3-F

4.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및 지원 역량 강화

참여자들이 언급한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요구는 역량 있는 전문 강사 및 인적 자원 확보, 평생교육 운영 지원 여건 개선, 협력 네트워크에 기반한 공유와 확산, 성과관리에 대한 관점의 변화, 유효한 정책과 실질적인 예산 확보 등 5개의 하위주제로 나타났다.

1) 역량 있는 전문 강사 및 인적 자원 확보

중도중복장애의 특성에 적합한 평생교육 전문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강사 양성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등 기관마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평생교육의 질은 강사의 전문성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강사의 전문성은 연수나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발전시켜야 평생교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강사는 장애인의 반응을 잘 끌어내니까 교육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 강사는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진행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의 경우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수에 참여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G4-I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심리상담, 행동 지도, 장애인복지와 같은 이론적 지식도 필요하고,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많아야 하죠. 장애유형별 특성도 알아야 하지만, 개인적인 특성이나 관심과 호감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격려와 칭찬 등 상황에 따라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와의 교육적 조율을 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G2-C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전문가가 없는 프로그램은 계획한다 해도 실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시

하면서 우수한 강사 인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학습자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시골이라는 지역적 특성이나 한계에 따라 수요자 욕구 중심의 전문인력 강사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요자 욕구가 아무리 높아도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은 인력 인프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매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G3-F

2) 평생교육 운영 지원 여건 개선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운영 지원의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첫째,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복지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나 평생교육사 또는 평생교육 소양을 갖춘 직원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운영 성과, 프로그램 내용, 강사의 전문성 등을 포함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평생교육기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4-I

둘째, 장애인의 정도와 유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다양해지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형태에 따라 중도중복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안전한 참여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현재의 운영 여건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 여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에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임을 명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 기관은 전국 최초로 21년 3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시범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처음에 4명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10명으로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내에서의 지원은 1:1이 가능하지만, 외부 활동을 할 때는 두 배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최중증발달장애인은 도전 행동이 있어서, 24시간 교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도교사가 필요합니다. G1-A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라벨이 붙습니다. 사업 이름에 장애정도가 드러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G1-A

셋째, 프로그램을 직접 교육하는 강사 인력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기관의 담당 실무자들의 지원 역량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다수 모아졌다. 열악한 근무 환경, 행정업무와 동시에 프로그램 지원 업무를 맡아야 하는 과중함, 부모나 가족의 과도한 요구와 이해 부족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담당자들의 잦은 퇴사는 전문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하였다. 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원사업을 받아오면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결과물 평가 등 서류작성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된다면 지원사업 신청을 안 해도 될 텐데. 복잡하더라도 행정 처리에 관한 인력 지원이 되면 괜찮으나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G2-C

보호자들은 왜 교육해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보호자와의 갈등으로 퇴사율이 정말 높습니다. 새로 뽑으면 교육해야 하고, 그런데 또 퇴사하고, 또 교육하고 또 퇴사하고. 매번 담당자는 신참인 상황입니다. 솔직히 중도중복의 장애인을 담당하려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원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요.

G1-A

3)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공유와 확산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 참여자들은 각 기관의 평생교육 지원사업 및 우수사례 공유, 공동사업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풀 공유, 자원 연계 및 공유를 통해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지역 차원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력과 소통의 시너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 프로그램 자원을 연계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은 개인의 성장과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기능을 향상하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거시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G3-F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컨설팅이긴 하지만, 서로 경험한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G1-A

참여자들은 전문가의 역할과 역량이 갖는 의미가 크며, 전문가의 책무성을 높이 인식하였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통합 제공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용을 협력하고 공유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현장 유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평생학습 관련한 정보를 잘 모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정보를 받아야 할지. 문자 안내나 복지관 게시판, 홈페이지에 안내하지만, 장애인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한정적입니다. 복지관 외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일원화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도 필요합니다. G2-D

담당자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평생학습에 관해 난상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전문적 컨설팅이나 슈퍼비전도 함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거점기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기관별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노하우도 나누는 그런 공유를 원합니다. G2-D

4) 성과관리에 대한 관점의 변화

중도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우수성'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성과는 양적인 평가만으로는 실질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다양한 인지 및 신체적 도전과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수치로는 중복장애인의 학습 경험과 개인적 성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으며, 개별 참가자의 변화와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성과를 측정하는 관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결과물이나 작품, 공연이나 대회 참가 실적,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중복장애인 교육의 성과는 당사자가 교육에 참여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개인의 행복감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과이며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G2-D

평가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중복장애인에 대한 성과 중심의 인식에서 행복감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중도중복의 발달장애인이 한 달 동안 소식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면서, 개인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다면

그게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개인이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로요. G3-G

또한 성과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성과관리 절차가 실질적인 지원 업무에 방해된다면 과감히 절차와 과정이 간소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당연히 교육 성과를 분석하거나 홍보를 해서 환류 체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담당자 처지에서는 그 어떤 과정이나 절차, 결과 취합이나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가 과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간소화 되어야 합니다. G3-F

5) 유효한 정책과 실질적인 예산 확보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는 있지만, 기관의 구조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만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필요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해가 지남에 따라 강사비와 재료비도 증가하고 있어 현실적인 운영비 부족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자체의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행복감이란 결국 자신의 욕구와 자아실현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장애인의 개별화를 전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목표와 방법을 찾습니다. 장애인 학습자와 지원 인력의 비율을 보면 개별적인 행복감보다 외부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양적인 수치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몇 명이 몇 번 참여했는지.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지원 인력과 재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G3-F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수나 양에 비해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다양한 기관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진행 욕구를 가진 모든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와 평가를 통해 한정적인 기관에만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모에서 탈락한 기관들은 다른 지원기관에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대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G4-I

정책과 예산에 관한 대화 중 참여자들은 우수한 강사의 확보와 지원 인력, 장소 등의 문제 역시 예산 부족에서 나타난 결과로 인식하였다. 또한 법과 정책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역마다 기반 여건이 달라서 지역별로 차별적 지원체계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는 학습자 5~6명당 수행 인력이 1명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인력배치 구조는 학습자 3명당 수행 인력 1명입니다. 재원의 한계가 가장 크고, 지역사회 내의 평생 교육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장소 섭외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공 인력 부족, 교육비 재원 부담, 현장 교육 장소 섭외,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 찾기의 어려움이 모두 예산 문제인 거죠. G2-C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비해 현재 인력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별적 접근보다 집단적 운영접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다르고,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지원체계가 차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획일화의 위험성은 있지만 지역자원의 편차나 지원 정책 차별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표준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체계를 명시화해서 일관성 있는 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G3-F

최근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인해 사업 예산이 확보되고 있지만, 정책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임을 염려하면서, 향후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우리 구가 지금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나 프로그램 지원이 그나마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3년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마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G2-D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 실행하고 있는 10명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어려움 및 지원요구를 고찰하였다. 본 절에서는 기관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도출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이 무기력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중도중복장애인이 건강한 삶,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 주도적인 자기 선택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평생교육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강은영 외(2019)의 연구에서도 삶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기결정에 대한 주도성을 갖추었을 때 삶의 만족도

와 행복감은 유의미하게 높아지므로(윤희정, 신자은, 2015; Sheehy & Nind, 2005) 중도중복장애인 당사자의 즐거운 삶을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중도중복장애인은 삶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배제되어온 경향이 있고(wehmeyer, 2005), 제한적인 환경 내에서 선택과 기회의 순간에 수동적인 삶을 살아온 경우가 많으며, 선택과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중도중복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이 제공되지 않아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직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중도중복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관계 맺고, 정서적 안녕과 자기결정권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김보배, 2023; 김정연, 허유성, 표윤희, 2023; 김평강 외, 2019; 이지선 외, 2024)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중도중복장애인이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중도중복장애인이 선택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도중복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수요자 기반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평생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2).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중도중복)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 일상생활기능 향상, 여가 및 문화생활 충족, 진로 및 취업 연계 등 장애인 맞춤형 개별화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다변화해야 한다(강동선, 2017; 송소현 외, 2011). 심한 장애로 인해 중도중복장애인의 선호도 파악이 어려워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는 참여자, 중증의 장애인이라도 여가오락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주의 평생교육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진로 및 취업과 연계되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참여자 등 의견은 다양하였지만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기준으로 계획하고 운영되어야 함을 실무자들은 강조하였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강은영 외, 2019; 김삼섭 외, 2019; 김정연, 표윤희, 허유성, 2024)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다.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잔존 움직임을 활용하여 도자기 제작에 참여하고, 작품 전시회 개최, 작품 판매 과정에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목표나 내용의 조정, 인력지원, 환경수정을 통해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하도록 하여 중도중복장애인이 만족감을 느끼고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있어 스펙트럼이 다양한 중도중복장애이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가장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의사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중도중복장애인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프로그램이 구성되더라도 현실적

으로 만족감이 높지 않다면 무의미하므로(윤지현, 김호연, 김두영, 2016) 중도중복장애인의 변화 정도와 만족도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 및 변경하는 선순환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은 포괄적 의료와 재활서비스를 통해 안전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개별화된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의 장애 특성상 평생교육에서 안전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하고, 중도중복장애인의 건강관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지표에 건강관리를 대비한 예방적 활동이나 주제를 포함할 것을 제시한 김원호, 황수연과 박지석(2024)의 연구, 건강관리체계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해야 한다는 강은영 외(2019)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치료를 통해 장애의 중도중복화로 인한 근육의 퇴행 속도를 늦추면서 모든 활동 참여의 기본이 되는 소근육 및 대근육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재활서비스가 포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거나 중복장애인이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에 포함하고,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잔존 움직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중도중복장애인과 관련한 인적 구성원인 가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협력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보호자 교육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가족의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함은 여러 선행연구(명소연, 김두영, 2017; 이재호, 박영근, 차재경, 2020; 정평강 외, 2019)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중도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여 진행해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평생교육 관련 안내 서비스의 실질적인 정비와 부모 간담회를 통해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돌봄의 힘듦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과 좌절감을 경험하는 가족의 심리적 소진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가족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의 방향 모색도 필요하다.

다섯째,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인력이 중도중복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들의 전문성 확보와 평생교육 제공 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연구 참여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특성에 맞춘 지원인력을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올바른 태도를 갖춘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지선 외(2024)의 연구를 뒷받침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별로 장애이해교육이 강화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교수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박미진, 김기룡, 주영하, 2020; 이현주, 정평강, 2021)를 지지한다. 장애인

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강사는 장애인의 반응을 잘 이끌어낼 수 있고, 강사의 이해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이 좌우되므로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수에 참여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중도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 특성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중도중복장애인 지원 사례 경험을 축적하고 중도중복장애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들을 구성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과 프로그램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며,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인력을 공유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김정연, 허유성, 표윤희, 202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발굴해 내야 하고, 전문적 컨설팅과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도중복장애인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지원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지원기관과의 협력, 지역 차원에서의 관계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의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통합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평생교육 서비스 운영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Fleming & Fairweather, 2012), 일반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자 간의 경험 공유를 통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평생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도중복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졸업한 중도중복장애인의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민호(2017)의 연구와 장애인 평생교육이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선행연구(이지선 외, 2024; 정평강 외, 2019)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제공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체 지역사회를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대학과의 연계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공유가 확대된다면 중도중복장애인에게 더 나은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관련 법률과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평생교육기관 실무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사업 구현의 토대가 될 지식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중도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평생교육 및 지원 체계 개발 연구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가 현장에 활발하게 보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Cha, J. K., Park, Y. K., & Lee, J. H. (2021).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ed on worker for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s in G cit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7(2), 233-258.
[차재경, 박영근, 이재호 (20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G 광역시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7(2), 233-258.]
- Cho, C. B., Kim, D. Y., & Jang, C. S. (2022). Analysis of satisfaction and study achievement of adult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ng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61(2), 149-176.
[조창빈, 김두영, 장철승 (2022).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및 학습성과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1(2), 149-176.]
- Cho, C. B., Kim, D. Y., Jang, C. S., & Shin, M. S. (202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CIPP evaluation model. *Research in Special Education*, 29(1), 1-28.
[조창빈, 김두영, 장철승, 신민선 (2022). CIPP 평가모형에 근거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연구. **특수교육연구**, 29(1), 1-28.]
- Choi, Y. Y., & Lee, S. H. (2020). A study on perception and task of lifelong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4), 133-139.
[최윤영, 이세희 (2020).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식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10(4), 133-139.]
- Fleming, A. R., & Fairweather, J. S. (2012). The role of postsecondary education in the path from high school to work for youth with disabilitie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55(2), 71-81.
- Goodley, D. (2000). *Self-advocacy in the lives of people with learning difficulties: The politics of resilience*. Open University Press.
- Hong, S. D., & Jo, E. H. (2018). Research trends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9(3), 95-113.
[홍성두, 조은혜 (2018). 발달장애 평생교육 프로그램 국내 연구 동향. **한국초등교육**, 29(3), 95-113.]
- Jeong, P. G., Lee, H., Lee, Y., & Ku, J. A. (2019). A qualitative inquiry of the need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families for lifelong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5(4), 57-82.
[정평강, 이현주, 이영선, 구정아 (2019). 평생교육에 대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요구 탐색. **평생학습사회**, 15(4), 57-82.]
- Kang, D. S. (2017). The effects of an independent living-focuse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targeting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eacher Education Research*, 56(1), 12-28.

[강동선 (2017). 발달장애성인의 자립생활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적용효과. **교사교육연구**, 56(1), 12-28.]

Kang, D. S., & Shin, J., S. (2015). A basic study on the career-based lifelong education model for the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9(1), 1-22.

[강동선, 신진숙 (2015). 성인발달장애인 직업중심 평생교육 모델에 관한 기초 연구. **발달장애연구**, 19(1), 1-22.]

Kang, E. Y., Lee, I. K., Lee, J. W., & Shin, Y. H. (2019).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s and demands of life-long education recognized by parents and field experts of life-long learner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2(4), 1-33.

[강은영, 이인경, 이재원, 신윤희 (2019).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평생학습자의 부모와 현장전문가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2(4), 1-33.]

Kang, J. H., & Jeong, Y. S. (2023). Experience of practitioner on lifelong learning city business manag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9(1), 1-26.

[강주희, 정연수 (202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실무자의 운영 경험.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9(1), 1-26.]

Kim, B. B. (2023).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 study on lifelong education support experiences.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9(2), 29-56.

[김보배 (2023).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험에 관한 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9(2), 29-56.]

Kim, D. Y., Kim, H. Y., & Hong, J. Y. (2014). The status and need analysis of life-long education among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and other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15(3), 199-228.

[김두영, 김호연, 홍재영(2014).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15(3), 199-228.]

Kim, J. Y.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model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ed on the case of Gyeonggi-do.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6(2), 1-28.

[김주영 (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모형 개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복지연구**, 6(2), 1-28.]

Kim, J. Y., Heo, Y. S., & Pyo Y. H. (202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pecialized lifelong education model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Buk-gu*. Buk-gu, Gwangju Metropolitan City.

- [김정연, 허유성, 표윤희 (2021). **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특화모델개발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
- Kim, J. Y., Heo, Y. S., & Pyo, Y. H. (2023). Inquiry on experience of operation and developmental strategy of lifelong education for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lifelong education mode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G Metropolitan City.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6(1), 97-130.
- [김정연, 허유성, 표윤희 (2023). 지역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경험 및 발전 전략 탐색: G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6(1), 97-130.]
- Kim, J. Y., Jeong, Y. S., & Kwon, M. S. (2019). A study on the designation criteria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Society of Life 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5(1), 1-27.
- [김주영, 정연수, 권명숙 (201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연구. **장애인 평생교육·복지연구**, 5(1), 1-27.]
- Kim, J. Y., Joo, K. Y., & Kang, E. Y. (2021). A Study on the roles and operation plans of the lifelong education support cent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local communities - In case of the metropolitan areas -.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3(4), 211-245.
- [김주영, 주교영, 강은영 (2021).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질 제고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 방안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 **특수아동교육연구**, 23(4), 211-245.]
- Kim, J. Y., Park, E. H., & Pyo, Y. H. (2022). A Delphi survey on mid-to long-term plan for communication suppor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3(3), 155-186.
- [김정연, 박은혜, 표윤희 (2022).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중장기 계획에 대한 델파이 조사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3(3), 155-186.]
- Kim, K. R. (2015). Developmental policy-making th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providing schooling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and Post-Secondary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1(1), 85-103.
- [김기룡 (2015).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장애인고등교육연구**, 1(1), 203-236.]
- Kim, K. R. (2020). Exploring variable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4), 333-341.
- [김기룡 (2020).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4), 333-341.]
- Kim, K. R., & Lee, G. J. (2017). Establishment and future challenges of lifelong education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amendment of Lifelong Education Act.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3(1), 1-30.
- [김기룡, 이경준 (2017).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향후 과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3(1), 1-30.]

- Kim, K. R., & Lee, K. J. (2017). Establishment and future challenges of lifelong education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Amendment of Lifelong Education Act.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 Welfare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3(1), 1-30.
[김기룡, 이경준 (2017).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 과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3(1), 1-30.]
- Kim, K. R., & Na, K. E. (2015). Analysis of the parents' need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6(4), 315-336.
[김기룡, 나경은 (20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요구 분석.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6(4), 315-336.]
- Kim, S. S., Kim, K. R., Kim, J. Y., Park, K. S., Park, M. J., Yoo, K. W., Lee, K. J., Lee, Y. M., Jeong, S. Y., Cho, M. J., & Cho, H. J. (2018). *Basic research for establishing the 'Long-term plan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san: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김삼섭, 김기룡, 김지연, 박경석, 박미진, 유기웅, 이경준, 이영미, 정소영, 조민제, 조홍중 (2019).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Kim, W. H., Hwang, S. Y., Park, J. S. (2024). A study to verify the content validity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28(1), 19-37.
[김원호, 황수연, 박지석 (202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지표의 내용타당도 검증 연구. **발달장애연구**, 28(1), 19-37.]
-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23). *2022 Statistics on people with multiple disabilities*.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2022 중복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개발원.]
- Kwon, M. Y. (2022).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lifelong education-related workers on STEAM-based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61(2), 103-124.
[권미영 (2022). 발달장애인의 STEAM 기반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의 인식 조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1(2), 103-124.]
- Lee, H. J., & Jung, P. G. (2021). Analysis of perceptions and needs of workers in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e 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7(2), 233-258.
[이현주, 정평강 (20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인식 및 요구. **평생 학습사회**, 17(2), 233-258.]
- Lee, J. H., Park, Y. K., & Cha, J. K. (202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parents and guardians of G C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13(1), 119-145.

- [이재호, 박영근, 차재경 (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G 광역시의 보호자와 후견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3(1), 119-145.]
- Lee, J. S., Kim, Y. R., Baek, Y. E., Choi, A. R., Lee, C. M., & Im, B. R. (2024). Perceptions and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ir families, and workers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bout lifelong lear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5(1), 129-155.
- [이지선, 김유리, 백예은, 최아름, 이종민, 임보령 (2024).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장애인, 가족, 평생학습기관 실무자의 인식 및 요구: A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5(1), 129-155.]
- Lee, Y. S. (2019). *Policy development in lifelong learning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Gyeonggi-do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institute.
- [이영선 (2018).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제 개발 연구**.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원.]
- Merriam, S. B., & Tisdell, E. J. (2015).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John Wiley & Sons.
- Ministry of Education (2022). *The 5th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lifelong education ('23~'27) lifelong learning promotion plan*.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22). **제 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23~'27) 평생학습 진흥방안**. 교육부]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Disability policy changes in 31 years.", press release. Retrieved of on June 12, 2019,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 정책이 31년만에 바뀝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06. 24.]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4). *2,642,000 registered disabled people in 2023, 5.1% of the total popul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2024.4.19.
- [보건복지부 (2024).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4.19.]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 *2020 Survey on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Myeong, S. Y., & Kim, D. Y. (2017). The perception of and the state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f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8(3), 1-23.
- [명소연, 김두영 (2017).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 인식 및 참여 실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8(3), 1-23.]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2).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NARS Current Issues Analysis (May 18, 2022, No. 250).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국회입법조사처 (202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2022. 05. 18. 제

250호). 국회입법조사처.]

Park, M. J., Ju, Y. H., & Kim, K. R. (2020).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consumers and supplier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2*(3), 107-200.

[박미진, 김기룡, 주영하 (2020).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연구: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22**(3), 107-200.]

Sheehy, K., & Nind, M. (2005). Emotional well-being for all: mental health and people with profound and multiple learning disabilities.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3*(1), 34-38.

Song, S. H., Kim, Y. M., Kim, Y. P., Na, H. J., Park, J. K., & Jeong, H. D. (2011).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support model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special schools*. Asan: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송소현, 김영미, 김영표, 나홍주, 박재국, 정해동 (2011). **특수학교 기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모형개발**.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Wehmeyer, M. L. (2005). Self-determination and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Re-examining meanings and misinterpretations. *Research and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30*(3), 113-120.

Yun, H. J., & Sin, J. E. (2015).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The role of public transfer incom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4), 432-461.

[윤희정, 신자은 (2015).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보건사회연구, 35**(4), 432-461.]

<국문 초록>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무자의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개선방안 탐색

표 윤 희 · 김 정 연

[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여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는 10명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무자가 참여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담지를 개발하였고, 개별 면담, 소집단 면담 방식으로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태 및 인식, 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 방안, 문제점, 요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 면담 결과, 4개의 대주제와 19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1)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대감, 2) 중도중복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제 조건, 3)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참여 기회 확대, 4)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및 지원 역량 강화.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무자의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여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 지원의 방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질적연구, 경험, 지원방향

논문 접수(Received): 2024. 08. 16. / 심사 시작(Examined): 2024. 08. 16. / 게재 확정(Accepted): 2024. 09. 20.